제175호
2022-14호
(2022.8.31.)

KLSI

ISSUE PAPER

www.klsi.org

2022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 소득분위별 소득증감율과 주요 분배지표의 변화를 중심으로 -

박영삼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목차]

Ⅰ. 머리말
Ⅱ. 일반 현황 -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Ⅲ. 소득분위별 시장소득 및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Ⅳ. 소득분배지표
Ⅴ. 2020년 코로나19 위기 시기와 비교
Ⅵ. 결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407 (백련빌딩) 701호
전화 02)393-1459
팩스 02)393-4449
www.facebook.com/klsi.org/

〈요 약〉

○ 올해 2/4분기 가계동향 원자료 분석결과, 가구의 시장소득 증가율은 명목기준 평균값으로 7.1%, 중위값으로 6.1% 증가했으나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기준으로 평균값 1.6% 증가, 중위값은 0.7% 증가하는데 그쳤음.

- 처분가능소득은 명목기준 평균값으로 13.6% 중위값으로 10.8% 증가했으나 실질기준으로 평균값 7.8% 중위값 5.1% 증가율을 보였음.

○ 시장소득의 경우 저소득분위 가구일수록 소득증가율이 뚜렷하게 높았으나 처분가능소득은 저소득가구의 증가율이 높았으나 고소득 가구와 차이가 크지 않았음.

- 특히 코로나19 위기 손실보상 등 사회수혜금의 경우 1~2분위 저소득 가구에게는 소득증가 효과가 거의 없었고, 최상위 분위일수록 지원에 의한 소득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15.2%이나 사회수혜금의 기여도는 2.6%p에 불과했으며, 5분위 가구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14.4%에 대한 사회수혜금의 기여도는 9.8%p로 2/4분기에 지급된 정부의 지원금은 고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소득분배지표 중 다수의 지표는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개선되었으나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악화된 결과를 보임.

- 시장소득 기준 5분위배율은 11.52배로 전년 동기에 비해 개선(0.99배p)되었으나 처분가능소득기준 5분위배율은 5.59배에서 5.60배로 +0.046배p 증가
- 상위 10% 가구의 소득점유 비중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25.1%에서 24.8%로 감소하였으나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22.5%에서 22.7%로 악화되었음. 이에 따라 시장소득 기준 팔마비율은 1.54배를 기록하여 전년 동분기에 비해 0.06배p 개선되었으나 처분가능소득 기준 팔마비율은 1.13배로 전년동기 대비 악화(+0.02배p)
- 지니계수도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0.369로 지난 해보다 개선(-0.007)되었으나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0.311로 +0.004 더 상승하여 악화되었음.
- 주요 분배지표 중 상대빈곤율만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기준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시장소득 빈곤율은 20.44%(-0.83%p), 처분가능소득 빈곤율은 14.50%(-0.53%p)를 기록

○ 실증분석 결과 '22년 2/4분기의 경우 사회수혜금이 1% 증가할 경우 지니계수

를 0.9%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 변화 (전년 동분기 대비)

	시장소득 기준			처분가능소득 기준		
	'21 2/4	'22 2/4	증감	'21 2/4	'22 2/4	증감
5분위배율(배)	12.51	11.52	-0.990	5.59	5.60	0.046
팔마비율(배)	1.60	1.54	-0.057	1.10	1.13	0.02
지니계수	0.376	0.369	-0.007	0.307	0.311	0.004
상대빈곤율(%)	21.27	20.44	-0.83	15.04	14.50	-0.53

2022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 소득분위별 소득증감율과 주요 분배지표의 변화를 중심으로 -

박영삼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Ⅰ. 머리말

○ 지난 8월 18일 통계청은 2022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
- 정부는 2/4분기 가계소득이 전년 동기대비 12.7% 증가하며 2006년 통계 발표 이후('06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으며, 다만 물가상승 등 영향으로 실질소득은 6.9% 증가했다고 밝힘.[1)]

○ 정부는 시장소득 증가와 정부의 손실보상 지원 등에 따라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설명
- 정부는 공식적인 소득분배 개선 여부는 향후 가계금융복지조사('23년말 공표 예정)를 통해 판단할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모든 분위에서 총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1분위 가구 소득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16.5%)했으며, 균등화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배율은 5.60배로 전년 동기(5.59배) 대비 비슷한 수준(+0.01배p)이라고 밝힘.
- 이와 관련 가계소득 증가의 원인으로 취업자 증가와 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 자영업자 증가와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사업소득 증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2차 추경집행으로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한데 따른 결과로 설명

○ 그러나 2/4분기는 '20년 2/4분기에 시장소득이 가장 급격히 감소한 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가장 큰 규모로 지원되는 등 시장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등락이 크게 발생함에 따라 t+1. t+2기에 나타나는 기저효과에 대한 주의가 필요
- '20년 2/4분기 : 사회적 거리두기 본격화로 시장소득이 크게 감소(-5.0%)한 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최대 규모의 정부지원을 통해 처분가능소득은 더 큰 규모로 증가(+5.9%)

1)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22.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2.8.18.

- '21년 2/4분기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전년도 코로나 충격의 기저효과로 인해 시장소득은 증가(+6.2%)했으나 전년도 재난지원금의 기저효과와 정부지원금 축소로 처분가능소득은 감소(-2.4%)
- '22년 2/4분기 :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시장소득이 증가하고(+7.1%)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으로 처분가능소득도 증가(+13.6%)했으나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 미친 영향 확인 필요

○ 이하 이 글에서는 통계청이 24일 공개한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득분포의 일반적 추이와 소득계층별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의 변화를 살펴보고, 5분위배율을 비롯한 지니계수, 상대빈곤율, 팔마비율 등 주요 소득분배지표의 변동을 함께 분석하고자 함.

Ⅱ. 일반 현황 -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 2002년 2/4분기 전체 가구의 평균소득은 483.1만원이었으나 중위소득[2]은 406.3만원으로 나타남. 평균소득은 전년 동분기 대비 12.7% 증가했으나 중위소득은 이보다 낮은 12.0% 증가를 기록. 소비자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3]은 평균소득의 경우 6.9%를 기록했으나 실질 중위소득 증가율은 6.2% 증가

〈표 1〉 연도별 2/4분기 가계 총소득 및 증가율 추이 (단위: 천원, %)

		총소득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율(%)		
		'19 2/4	'20 2/4	'21 2/4	'22 2/4	'20 2/4	'21 2/4	'22 2/4
평균값	명목	4,169	4,315	4,287	4,831	3.5%	-0.7%	**12.7%**
	실질	4,188	4,335	4,202	4,492	3.5%	-3.1%	**6.9%**
중위값	명목	3,533	3,661	3,629	4,063	3.6%	-0.9%	**12.0%**
	실질	3,550	3,677	3,545	3,746	3.6%	-3.3%	**6.2%**
소비자물가지수(2020=100)		99.54	99.55	101.49	105.35	0.0%	2.5%	**5.4%**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에서 계산

○ 가구원들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과 가구간이전 등을 합산한 시장소득은 평균값이 375.3만원[4], 중위값이 323.3만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각각 7.1%,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평균값은 1.6%, 중위값은 0.7% 증가에 그침.

2)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위로 일렬로 세웠을 경우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평균소득은 소수의 초고소득 가구의 높은 소득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중위소득은 고소득 가구의 소득변동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적음.
3) 실질소득 = (명목소득 ÷ 소비자물가지수) × 100, 통계청 분기별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를 사용.
4) 총소득과 483만원과 시장소득 375만에서 108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시장소득에는 정부로 받은 공적이전소득·현물지원(68만원), 비경상소득(9만원)이 제외되고 타가구에 지출한 사적이전지출(31만원)을 차감하기 때문.

〈표 2〉 연도별 2/4분기 시장소득 및 증가율 추이 (단위: 천원, %)

		시장소득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율(%)		
		'19 2/4	'20 2/4	'21 2/4	'22 2/4	'20 2/4	'21 2/4	'22 2/4
평균값	명목	3,474	3,299	3,505	3,753	-5.0%	6.2%	7.1%
	실질	3,490	3,314	3,435	3,490	-5.0%	3.7%	1.6%
중위값	명목	2,947	2,800	3,046	3,233	-5.0%	8.8%	6.1%
	실질	2,960	2,813	2,869	2,974	-5.0%	6.2%	0.7%
소비자물가지수(2020=100)		99.54	99.55	101.49	105.35	0.0%	2.5%	5.4%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에서 계산
주 :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지출

○ 가구의 시장소득에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공적이전지출을 공제한 세후소득에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연말정산환급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한 처분가능소득은 평균값이 395.4만원, 중위값이 336.7만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각각 13.6%, 10.8% 증가하였음. 여기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기준으로는 평균값은 7.8%, 중위값은 5.1% 증가

〈표 3〉 연도별 2/4분기 처분가능소득 및 증가율 추이 (단위: 천원, %)

		처분가능소득*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율(%)		
		'19 2/4	'20 2/4	'21 2/4	'22 2/4	'20 2/4	'21 2/4	'22 2/4
평균값	명목	3,367	3,567	3,480	3,954	5.9%	-2.4%	13.6%
	실질	3,382	3,583	3,411	3,677	5.9%	-4.8%	7.8%
중위값	명목	2,906	3,119	3,039	3,367	7.3%	-2.6%	10.8%
	실질	2,919	3,133	2,948	3,052	7.3%	-4.9%	5.1%
소비자물가지수(2020=100)		99.54	99.55	101.49	105.35	0.0%	2.5%	5.4%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에서 계산
주 : 처분가능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
공적이전소득 =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기초생활급여, 실업급여, 근로자녀장려금, 육아수당, 양육수당 등), 세금환급금
공적이전지출 = 경상조세 +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건강보험) + 공적연금기여금

Ⅲ. 소득분위별 시장소득 및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 '22년 2/4분기의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시장소득의 경우 저소득분위일수록 소득증가율이 뚜렷하게 높고 고소득 분위의 증가율은 낮았음.

- (시장소득) 1분위의 증가율이 15.3%로 가장 높고 5분위의 증가율이 4.1%로 가장 낮음.
- 1분위 15.3% 〉 2분위 13.4% 〉 4분위 8.6% 〉 3분위 7.9% 〉 5분위 4.1% 순서(〈표 4〉 참조).

〈표 4〉 소득분위별 시장소득 증가율 (단위: 천원, %)

	시장소득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율(%)		
	'19 2/4	'20 2/4	'21 2/4	'22 2/4	'20 2/4	'21 2/4	'22 2/4
1분위	430	347	428	493	-19.3%	23.3%	15.3%
2분위	1,699	1,592	1,754	1,990	-6.3%	10.2%	13.4%
3분위	2,926	2,746	2,999	3,236	-6.2%	9.2%	7.9%
4분위	4,435	4,281	4,420	4,801	-3.5%	3.3%	8.6%
5분위	7,875	7,527	7,917	8,242	-4.4%	5.2%	4.1%
전 체	3,474	3,299	3,505	3,753	-5.0%	6.2%	7.1%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에서 계산

○ 그러나 처분가능소득의 경우에는 1분위의 소득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나 다른 고소득 분위의 소득증가율도 모두 높게 나타남.

- (처분가능소득) 1분위 증가율이 15.2%로 가장 높으나 5분위 증가율이 14.4%로 두 번째로 높고 다른 모든 분위에서 두 자리 수 증가.
- 1분위 15.2% 〉 5분위 14.4% 〉 4분위 14.2% 〉 2분위 13.4% 〉 3분위 11.0% (〈표 5〉 참조).

〈표 5〉 소득분위별 처분가능소득 및 증가율 (단위: 천원, %)

	처분가능소득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율(%)		
	'19 2/4	'20 2/4	'21 2/4	'22 2/4	'20 2/4	'21 2/4	'22 2/4
1분위	762	906	835	962	18.9%	-7.9%	15.2%
2분위	1,888	2,079	2,015	2,285	10.1%	-3.1%	13.4%
3분위	2,954	3,151	3,084	3,422	6.7%	-2.2%	11.0%
4분위	4,195	4,465	4,294	4,902	6.4%	-3.8%	14.2%
5분위	7,030	7,229	7,166	8,196	2.8%	-0.9%	14.4%
전 체	3,367	3,567	3,480	3,954	5.9%	-2.4%	13.6%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에서 계산

○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모두 처분가능소득의 두 자리 수 이상 증가율을 보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것은 '21년 2/4분기의 처분가능소득이 모든 분위에서 마이너스(-) 증가를 기록했던 것의 기저효과를 감안해야 함.

- 2년 전 '20년 2/4분기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 시장소득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처분가능소득이 크게 증가(5.9%)하였던 반면, 지난해 2/4분기에는 그에 비교할만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처분가능소득의 급격한 감소가 나타남.
- 특히 재난지원금 효과가 크게 작용했던 하위소득 계층의 소득 감소폭이 커서 1분위의 경우 소득이 -7.9% 감소한 반면 5분위의 소득 감소폭은 -0.9%에 그쳤음. 이에 올해 2/4분기의

처분가능소득 증가는 지난해 소득급감의 기저효과가 상당부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소득증가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증가(13.6%)에 대한 소득 종류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시장소득의 기여도가 7.1%p에 이르면서도 올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집행된 2차 추경 등에 따른 사회수혜금 증가(6.9%p)에 따른 공적이전소득 증가의 기여도가 7.4%p로 절반이 넘는 기여도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가 시장소득 증가율이 4.1%에서 불과한데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두 번째로 높은 14.4%에 이르게 된 것은 지난 5월 이후 지급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정부의 지원이 상위소득층에 집중되었던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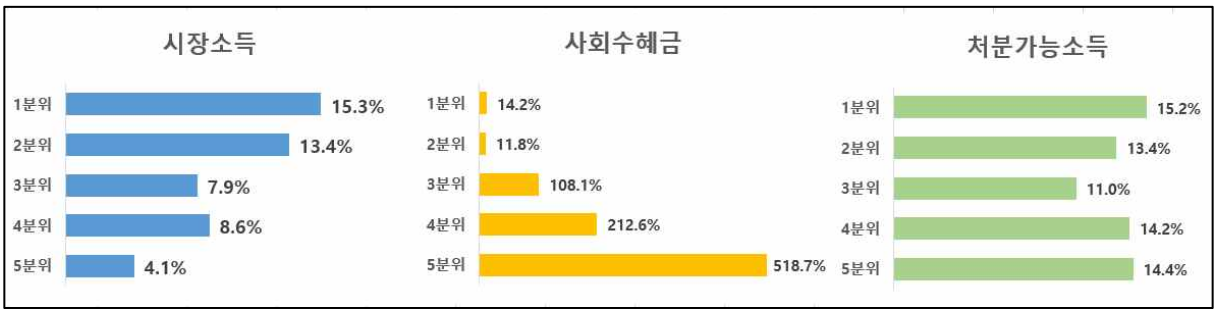
〈표 6〉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에 대한 소득종류별 기여도 (단위: 천원, %)

	소득액(천원)				증가율(%)			기여도(%p)*		
	'19 2/4	'20 2/4	'21 2/4	'22 2/4	'20 2/4	'21 2/4	'22 2/4	'20 4/4	'21 2/4	'22 2/4
처분가능소득	3,367	3,567	3,480	3,954	5.9	-2.4	13.6	5.9	-2.4	**13.6**
시장소득	3,474	3,299	3,505	3,753	-5.0	6.2	7.1	-5.2	5.8	**7.1**
- 근로소득	2,716	2,576	2,743	2,887	-5.1	6.5	5.3	-4.1	4.7	**4.1**
- 사업소득	833	778	806	927	-6.6	3.6	14.9	-1.6	0.8	**3.5**
- 재산소득	45	27	42	33	-41.4	59.7	-22.9	-0.6	0.4	-0.3
사적이전소득	204	194	196	214	-4.9	1.1	9.2	-0.3	0.1	0.5
공적이전소득	297	657	408	664	120.8	-37.9	62.8	10.7	-7.0	**7.4**
- 공적연금	135	158	180	195	17.2	14.2	8.1	0.7	0.6	0.4
- 기초연금	60	67	75	74	11.0	11.7	-0.7	0.2	0.2	0.0
- 사회수혜금	93	422	143	385	355.0	-66.0	168.1	9.8	-7.8	**6.9**
공적이전지출	414	401	442	476	-3.3	10.3	7.7	0.4	-1.2	-1.0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에서 계산
주 : * 기여도 =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 (소득종류별 증감액/처분가능소득 증감액)

- 사회수혜금의 소득분위별 증가율을 보면 1~2분위의 증가율은 1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반면, 최상위 5분위의 증가율은 518.7%에 달하며 4분위의 증가율도 212.6%에 달함.
- 전년 대비 순증한 사회수혜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 코로나19 지원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득 하위 분위에 대한 사회수혜금의 기여가 미미한 가운데 소득분위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난 결과는 최근의 코로나19 손실보상이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집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림 1] 22년 2/4분기 소득분위별 시장소득, 사회수혜금,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단위: %, 전년동분기 대비)



○ 소득분위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기여도 분석을 통해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사회수혜금 지원이 고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1~3분위의 경우 처분가능소득 증가에 대해 근로소득 증가가 전체의 90%에 해당하는 10~12%p에 절대적인 기여도를 차지한 반면, 최상위 5분위의 경우 재산소득(9.8%p)과 사회수혜금(9.8%p)이 각각 절반을 차지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마이너스(-) 기여를 보임.
- '22년 2/4분기 처분가능소득 증가는 하위소득계층의 경우 가구원들의 경제활동에 따른 시장소득의 증가에 힘입은 것이고, 상위 소득계층은 오히려 정부의 재정지원에 따른 수혜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저소득층이 재난구제 등을 포함한 공적이전소득의 수혜를 받고 고소득층의 경우 시장소득의 증가를 주도하는 일반적인 현상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예외적 결과

〈표 7〉 분위별 처분가능소득 증가에 대한 소득종류별 기여도(22 2/4) (단위: %, %p)

	소득증가율(%)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p)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처분가능소득	15.2	13.4	11.0	14.2	14.4	15.2	13.4	11.0	14.2	14.4	13.6
시장소득	15.3	13.4	7.9	8.6	4.1	7.8	11.7	7.7	8.9	4.5	7.1
- 근로소득	47.3	28.3	13.2	7.4	-4.7	**12.0**	**17.9**	**10.1**	5.9	-4.2	4.1
- 사업소득	9.5	-2.0	15.1	61.5	-52.0	0.1	0.0	0.1	0.4	-1.0	3.5
- 재산소득	-19.6	-27.2	-10.2	10.3	40.5	-2.6	-6.0	-2.2	2.6	**9.8**	-0.3
사적이전소득	9.0	8.0	15.4	12.1	2.8	1.9	0.7	0.9	0.6	0.1	0.5
공적이전소득	14.3	11.5	35.7	86.7	167.6	7.3	2.4	4.7	7.6	**9.8**	7.4
- 공적연금	32.7	24.6	1.2	3.8	-5.1	**4.1**	2.1	0.1	0.2	-0.2	0.4
- 기초연금	2.0	-12.7	-15.5	7.9	63.2	0.4	-0.6	-0.3	0.1	0.2	0.0
- 사회수혜금	14.2	11.8	108.1	212.6	518.7	2.6	0.9	4.8	**7.3**	**9.9**	6.9
공적이전지출	27.8	12.4	13.2	19.0	-0.1	-1.4	-1.0	-1.4	-2.2	0.0	1.0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에서 계산
주 : *기여도 =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 (소득종류별 증감액/처분가능소득 증감액)

○ 저소득층 시장소득 회복 등 긍정적 지표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에 더 많이 지원된 공적이전소득이 처분가능소득의 분배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Ⅳ. 소득분배지표

○ 소득분배지표는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기준 모두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의 상대적 차이를 상쇄하기 위해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소득값으로 계산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 / √가구원수
균등화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지출) / √가구원수

○ **5분위배율 : 상위 20% 평균소득 ÷ 하위 20% 평균소득**

- **5분위배율[5]은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2년 연속 개선되고 있으나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2년 연속 악화**되고 있음.
- (시장소득) 균등화시장소득 기준 5분위배율[6]은 11.52배로 전년 동기에 비해 개선(0.99배p). '20년 2/4분기에 시장소득 5분위배율이 급등하였으나 '21년 2/4분기 이후 2년 연속 개선
- (처분가능소득)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배율은 5.60배로 0.01배p 증가. '20년 이후 2년 연속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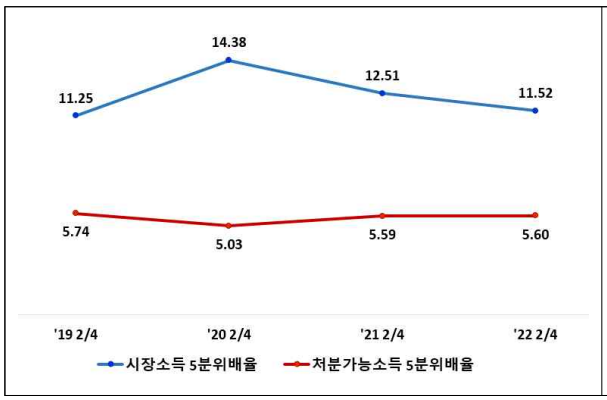
〈표 8〉 균등화소득 5분위배율 추이 (단위: 배, 배p)

		균등화시장소득				균등화처분가능소득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19		13.97	11.25	11.24	10.56	6.74	5.74	5.76	5.83
2020		14.77	14.38	13.08	11.85	6.89	5.03	5.92	5.78
2021		16.20	12.51	11.93	11.70	6.30	5.59	5.34	5.71
2022		14.82	11.52			6.20	5.60		
증감	19-20	0.80	3.13	1.83	1.29	0.16	-0.71	0.15	-0.05
	20-21	1.43	-1.87	-1.15	-0.15	-0.59	0.56	-0.58	-0.07
	21-22	-1.38	-0.99			-0.10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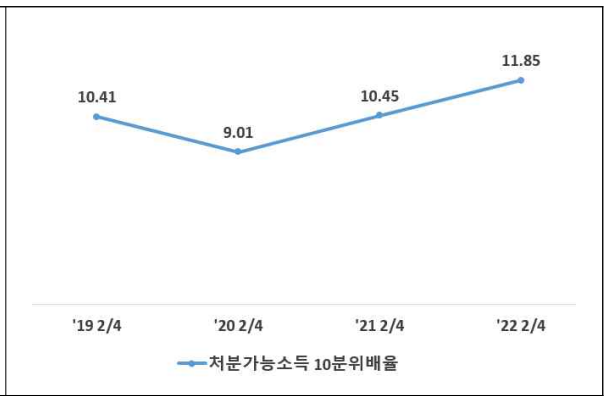
- 처분가능소득 5분위배율 악화는 10분위배율을 통해서도 확인(9.01배 → 10.45배 → 11.85배)

5) 균등화시장소득 기준 5분위배율: ('20.2/4)14.38 ('21.2/4)12.51 ('22.2/4)11.52
6) 균등화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배율: ('20.2/4)5.03 ('21.2/4)5.59 ('22.2/4)5.60

[그림 2] 5분위배율 추이



[그림 3] 10분위배율 추이



○ **팔마비율 : 상위10% 소득비중 ÷ 하위40% 소득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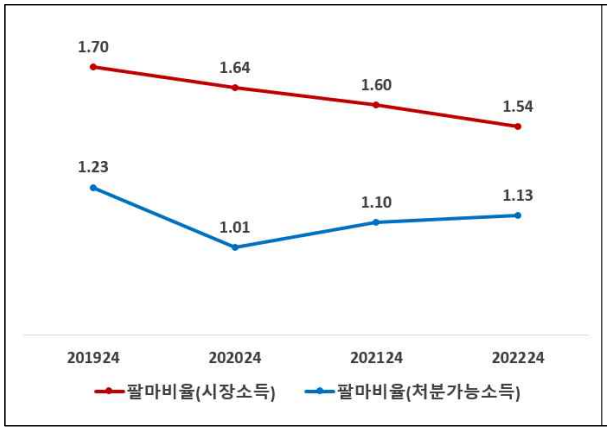
- **시장소득 기준 팔마비율은 개선되었으나 처분가능소득 기준은 2년 연속 악화**
- 시장소득 기준 팔마비율은 1.54배를 기록하여 전년 동분기에 비해 0.06배p 개선되었으나 처분가능소득 기준 팔마비율은 1.13배로 '21년(+0.09배p)에 이어 '22년에도 증가(+0.02배p)

〈표 8〉 **팔마비율 추이** (단위: 배, 배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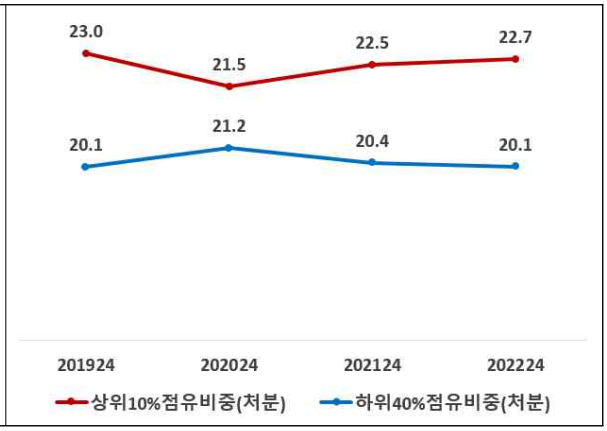
		균등화시장소득				균등화처분가능소득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19		1.78	1.70	1.54	1.54	1.27	1.14	1.11	1.18
2020		1.80	1.64	1.66	1.62	1.29	1.01	1.13	1.18
2021		1.82	1.60	1.59	1.59	1.21	1.10	1.04	1.15
2022		1.86	1.54			1.25	1.13		
증감	19-20	0.02	-0.05	0.13	0.07	0.02	-0.13	0.02	0.00
	20-21	0.02	-0.04	-0.08	-0.03	-0.08	0.09	-0.09	-0.03
	21-22	0.04	-0.06			0.04	0.02		

- 처분가능소득 팔마비율이 악화된 원인은 최상위10% 점유비중은 21.5% → 22.5% → 22.7%로 늘어난 반면 하위40% 점유비중은 21.2% → 20.4%→20.1%로 줄어들었기 때문

[그림 4] 각년도 2/4분기 팔마비율



[그림 5] 상위10% 및 하위40% 소득점유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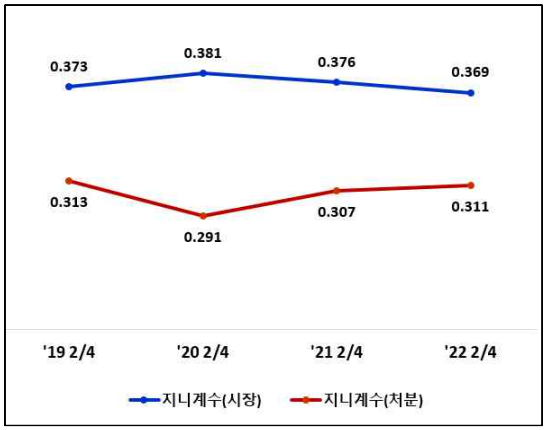
○ **지니계수 : 가장 대표적인 불평등지표.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

-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지난해 0.376에서 0.369로 개선(-0.007)됐으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07에서 0.311로 오히려 악화(+0.004)
-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20년 코로나19 위기 발발 때 0.381까지 상승한 뒤 2년 연속 하락.
  * ('20 2/4) 0.381 → ('21 2/4) 0.376 → ('22 2/4) 0.369
-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 0.291까지 하락한 뒤 2년 연속 상승.
  * ('20 2/4) 0.291 → ('21 2/4) 0.307 → ('22 2/4) 0.311

〈표 9〉 지니계수 추이 (단위: 배, 배p)

		균등화시장소득				균등화처분가능소득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19		0.394	0.373	0.370	0.370	0.334	0.313	0.310	0.318
2020		0.397	0.381	0.381	0.378	0.338	0.291	0.313	0.317
2021		0.398	0.376	0.376	0.376	0.325	0.307	0.298	0.313
2022		0.401	0.369			0.328	0.311		
증감	19-20	0.003	0.008	0.011	0.008	0.004	-0.022	0.004	-0.001
	20-21	0.001	-0.005	-0.006	-0.002	-0.013	0.016	-0.016	-0.004
	21-22	0.004	-0.007			0.003	0.004		

[그림 6] 각년도 지니계수 추이



○ **상대빈곤율 : 균등화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원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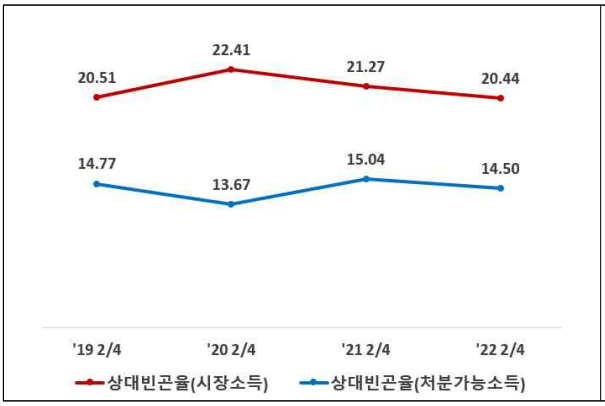
- 시장소득 상대빈곤율은 20.44%로 '20년 2/4분기에 22.41%를 기록한 이후 '21년 21.27%, 22년 20.44%로 2년 연속 감소(-1.15%p, -0.83%p)
- 처분가능소득 상대빈곤율도 '21년 15.04%에서 '22년 14.5%로 감소(-0.53%p)
-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모두 상대빈곤율이 개선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

〈표 9〉 상대빈곤율 추이 (단위: 배, 배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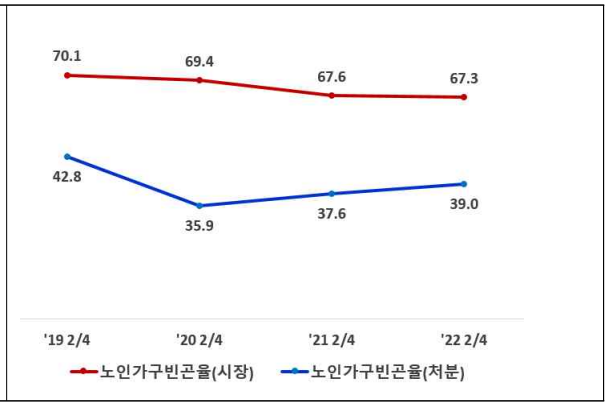
		균등화시장소득				균등화처분가능소득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19		21.90	20.51	20.35	19.06	17.23	14.77	15.22	14.57
2020		21.56	22.41	21.17	20.35	16.99	13.67	15.46	14.50
2021		22.79	21.27	20.10	19.98	16.61	15.04	14.65	14.70
2022		21.50	20.44			15.83	14.50		
증감	19-20	-0.34	1.90	0.82	1.29	-0.24	-1.10	0.24	-0.08
	20-21	1.23	-1.15	-1.07	-0.37	-0.38	1.36	-0.81	0.21
	21-22	-1.29	-0.83			-0.78	-0.53		

- 다만,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주된 문제였던 65세 이상인 노인가구의 상대빈곤율은 '20년 이후 2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

[그림 7] 각년도 상대빈곤율 추이



[그림 8] 노인가구 상대빈곤율 추이(65세이상)



V. 2020년 코로나19 위기 시기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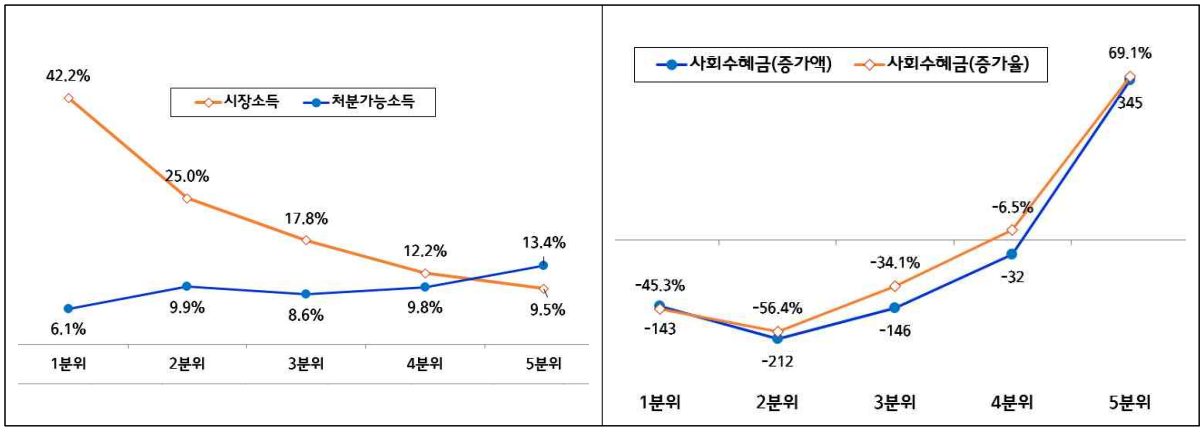
○ 저소득 가구의 시장소득 회복에도 불구하고 처분가능소득 기준 분배지표가 악화

-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된 '20년 2/4분기의 경우 시장소득 감소가 저소득층에 집중되었고 정부의 소득지원도 저소득층에 두텁게 혜택이 돌아갔음.
- 반면, 이때의 기저효과로 '21년 2/4분기의 처분가능소득이 모든 분위에서 감소하였으나 저소득층의 처분가능소득 감소폭이 훨씬 더 컸던 상황이 발생하였음.
- 여기에 올해 2/4분기 저소득층의 시장소득 중심 회복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손실보상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됨에 따라 처분가능소득 기준 분배지표가 일제히 나빠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같은 결과는 2년 전인 '20년 2/4분기 대비 소득변화를 비교해보면 보다 명확해짐.

- 2년 전에 대비한 각 소득분위의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비교하면, 1분위의 시장소득 증가율은 42.2%로 가장 높지만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6.1%로 가장 낮음. 하지만, 5분위의 시장소득 증가율은 9.5% 수준이지만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13.4%로 가장 높음.
- [그림 9]에서 나타나듯이 시장소득 증가율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정반대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 여기에는 그림의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2년 전과 비교할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사회수혜금의 감소율과 감소액이 클뿐만 아니라 최상위 5분위에게만 2년 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보다 더 많은 사회수혜금이 지원된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자영업의 경우 손실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상액도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같은 지원의 차등화가 처분가능소득의 분배지표 악화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은 부정하기 어려움.

[그림 9] '20년 2/4분기 대비 분위별 소득증가율과 사회수혜금 증가 비교



○ 처분가능소득을 구성하는 소득 종류별 불평등 기여도와 한계효과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기간 동안 지니계수의 감소, 즉 불평등 완화에 기여했던 사회수혜금이 '22년 2/4분기에는 불평등 심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년 2/4분기 사회수혜금이 1% 증가할 경우 지니계수는 -11.5% 감소(불평등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1년 2/4분기에는 사회수혜금이 1% 증가할 경우 지니계수는 -4.9%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년 2/4분기의 경우 사회수혜금이 지니계수를 감소시키는 한계효과는 기초연금이나 공적연금보다 더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21년 2/4분기에도 기초연금 다음으로 지니계수 감소 효과를 보임.
- 그러나 '22년 2/4분기의 경우 사회수혜금 1% 증가는 반대로 지니계수를 0.9%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사회수혜금은 일반적으로 가계동향조사에서는 기초연금 다음으로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주요한 공적이전소득이었으나 '22년 들어 불평등 심화에 기여하는 공적이전소득으로 변화됨.

〈표 10〉 균등화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 요인분해

	'20 2/4		'21 2/4		'22 2/4	
	비중[1]	한계효과[2] (%Change)	비중[1]	한계효과[2] (%Change)	비중[1]	한계효과[2] (%Change)
근로소득	66.7	0.208	72.4	0.133	67.1	0.012
사업소득	22.6	0.056	23.6	0.045	23.9	0.124
재산소득	0.9	0.003	1.9	0.018	1.1	0.001
사적이전소득	6.8	-0.038	7.1	-0.047	6.4	-0.052
공적연금	6.2	-0.039	6.8	-0.042	7.3	-0.048
기초연금	2.9	-0.066	3.2	-0.068	2.9	-0.061

	'20 2/4		'21 2/4		'22 2/4	
	비중[1]	한계효과[2] (%Change)	비중[1]	한계효과[2] (%Change)	비중[1]	한계효과[2] (%Change)
사회수혜금	12.0	-0.115	4.9	-0.049	10.2	0.009
세금환급금	0.3	0.001	0.3	0.002	0.2	0.001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에서 Stata descogini 모듈 사용하여 계산
주 : 1) 균등화처분가능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각 소득은 균등화한 값
2) 한계효과: 각 소득이 1% 증가할 때 지니계수의 변화율(%)

○ 이같은 소득분배 상황의 변화로 인해 분위별 가구 구성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음.

- 코로나19 위기 발발 직후인 '20년 2/4분기 5분위에서 근로자 가구주의 비중은 73.8%였으나 2년 후인 '22년 2/4분기 5분위의 근로자가구 비중은 66.1%로 -3.1%p 하락함.
- 반면, 5분위의 자영업자 비중은 2년 전에는 18.9%였으나 올해 2분기에는 28.0%로 증가
- 이 기간 동안 전체 가구 중 근로자가구 비중이 2.3%p 증가하고 자영업자 가구 비중은 0.8%p 감소했음에도 최상위 5분위에서의 자영업자 가구의 비중이 9.1%나 증가한 것은 유의한 변화
- 한편 하위 1분위의 근로자가구 비중은 23.4%에서 29.0%로 6.6%p 증가했고 자영업자 가구는 20.5%에서 14.5%로 -6.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영세자영업의 폐업과 새로운 자영업자의 진입 등 고용형태의 전환과 이동을 감안하더라도 고소득 분위의 자영업 비중 증가, 저소득분위의 자영업 비중 감소는 사실로 확인됨.

〈표 10〉 소득분위별 가구주 종사상지위 구성비 변화(2020-2022 2/4분기 기준) (단위:%, %p)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20년 2/4분기 구성비	상용	2.5	31.9	46.7	61.6	68.0	42.2
	임시일용	20.9	23.8	15.8	9.3	5.8	15.2
	고용주	0.6	1.6	4.3	4.8	6.2	3.5
	자영자	19.2	18.9	21.5	15.8	12.7	17.6
	특고기타	0.9	1.8	1.6	1.6	2.0	1.6
	무직기타	55.8	21.9	10.1	6.8	5.2	2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2년 2/4분기 구성비	상용	5.3	44.0	53.7	60.5	61.0	44.9
	임시일용	23.7	22.2	16.6	6.5	5.1	14.8
	고용주	0.4	1.1	3.3	4.2	10.5	3.9
	자영자	16.1	13.4	14.4	20.7	17.5	16.4
	특고기타	1.0	2.5	1.9	2.3	2.4	2
	무직기타	53.5	16.8	10.2	5.8	3.5	17.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증감(%p)	상용	2.8	12.1	7.0	-1.1	-7.0	2.7
	임시일용	2.8	-1.6	0.8	-2.8	-0.7	-0.4
	고용주	-0.2	-0.5	-1.0	-0.6	4.3	0.4
	자영자	-3.1	-5.5	-7.1	4.9	4.8	-1.2
	특고기타	0.1	0.7	0.3	0.7	0.4	0.4
	무직기타	-2.3	-5.1	0.1	-1.0	-1.7	-2.1

Ⅵ. 결론

○ '22년 2/4분기 가계 명목 평균소득은 전년 동분기 대비 12.7% 증가하였고 실질 평균소득은 6.9% 증가한 반면, 명목 중위소득은 12.0% 증가하고 실질 중위소득은 6.2% 증가

- 시장소득 증가율은 명목기준 평균값으로 7.1%, 중위값으로 6.1% 증가했으나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기준으로 평균값 1.6% 증가, 중위값은 0.7% 증가하는데 그침.
- 처분가능소득은 명목기준 평균값으로 13.6% 중위값으로 10.8% 증가했으나 실질기준으로 평균값 7.8% 중위값 5.1% 증가율을 보임.

○ 시장소득의 경우 저소득분위 가구일수록 소득증가율이 뚜렷하게 높았으나 처분가능소득은 저소득가구의 증가율이 높았으나 고소득 가구와 차이가 크지 않았음.

- 특히 코로나19 위기 손실보상 등 사회수혜금의 경우 1~2분위 저소득가구에는 소득증가 효과가 거의 없었고, 최상위 분위일수록 지원에 의한 소득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15.2%이나 사회수혜금의 기여도는 2.6p%에 불과했으며, 5분위 가구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14.4%에 대한 사회수혜금의 기여도는 9.8%p로 2/4분기에 지급된 정부의 지원금은 고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남.

○ 소득분배지표는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개선되었으나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악화된 결과를 보임.

- 시장소득 기준 5분위배율은 11.52배로 전년 동기에 비해 개선(0.99배p)되었으나 처분가능소득기준 5분위배율은 5.60배로 0.01배p 증가
- 상위 10% 가구의 소득 점유 비중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25.1%에서 24.8%로 감소하였으나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22.5%에서 22.7%로 악화되었음. 이에 따라 시장소득 기준 팔마비율은 1.54배를 기록하여 전년 동분기에 비해 0.06배p 개선되었으나 처분가능소득 기준 팔마비율은 1.13배로 전년 동기대비 악화(+0.03배p)
- 지니계수도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0.369로 지난 해보다 개선(-0.007)되었으나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0.311로 +0.004 더 상승하여 악화되었음.
- 주요 분배지표 중 상대빈곤율만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기준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시장소득 빈곤율은 20.44%(-0.83%p), 처분가능소득 빈곤율은 14.50%(-0.53%p)를 기록

○ 실증분석 결과 '22년 2/4분기의 경우 사회수혜금이 1% 증가할 경우 지니계수를 0.9%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표 10〉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 변화(전년 동분기 대비)

	시장소득 기준			처분가능소득 기준		
	'21 2/4	'22 2/4	증감	'21 2/4	'22 2/4	증감
5분위배율(배)	12.51	11.52	-0.990	5.59	5.60	0.046
팔마비율(배)	1.60	1.54	-0.057	1.10	1.13	0.02
지니계수	0.376	0.369	-0.007	0.307	0.311	0.004
상대빈곤율(%)	21.27	20.44	-0.83	15.04	14.50	-0.53